

# 地方分校 캠퍼스의 大學 文化 형성

## —地方分校의 現況과 展望(1)—

金 永 根

(延世大, 哲學)

### 地方分校의 現況과 展望

1. 地方分校 캠퍼스의 大學 文化 형성  
: 金永根
2. 地方分校의 實驗·實習 設備에 관한 現  
황적 분석: 姜錫泰
3. 地方分校의 地域經濟 발전에의 기여  
: 安京植
4. 地方分校에 대한 地域住民의 의식  
: 金珍浩
5. 地方分校 캠퍼스 環境에의 적응: 金水日

### 1. 地方文化 형성의 必要性

오늘날 우리들이 지방 캠퍼스에 관해서 논할 때 그것은 이미 신화화된 의식 속에서, 즉 나타난 실제적인 면들과는 거리가 먼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달리 말하면 지방 캠퍼스는 여전히 무지와 갈등이 혼재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생활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 지방 캠퍼스는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낙후와 소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줄속으로 빛어낸 지방 분교 정

책의 결과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 추구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의 결과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정치·경제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도시 문화의 공통인 서울은 과대망상적인 생활 양식의 표본이다. 따라서 지방의 낙후와 소외는 곧 지방 캠퍼스의 낙후와 소외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그러면 지방 캠퍼스는 이의 극복을 위해 어떠한 내용의 가치 체계를 설정해야 할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主體意識의 確立이다. 이 의식은 자기를 부정하는 자세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체 의식, 그리고 창조적인 문화 설계에까지 이른다. 오늘날 기존의 대학 문화는 산업 사회의 구조적 영향을 받아 서구 지향적인 대중 문화의 출현 속에 문화적 자주성을 뿌리채 침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캠퍼스는 다가올 '地方時代'라는 새 시대의 장을 열어야 하는 입장에서 주체의 의식을 통한 새로운 문화 전형 창출이 요구된다. 문화는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상경의 세계이다. 인간은 문화 그물 속에 거하기도 하지만, 그 문화의 그물을 개량하고 변형시킬 수도 있다. 인간은 "문화 창조의 힘이 한번 자신에게 주어지면

그 힘을 필연적인 것을 넘어서 적용하며 문화적인 것을 창립한다”(Landmann, 1969, p. 184). 인간은 이러한 문화적인 것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향한 삶의 설계가 가능하다. 인간과 문화는 동시에 존재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방 캠퍼스의 문화교육은 문화 형성의 출처인 살아 숨 쉬는 지방 문화와의 순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문화의 집’으로서의 지방 캠퍼스는 놀이 축제의 마당이 아닌, 지역 문화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할 때 지방 캠퍼스가 왜 지방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위치 정립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에 지방 캠퍼스가 갖고 있는 특수성의 계기와 보편성의 계기가 문제가 된다. 즉 중앙—지방, 본교—분교의 관계를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생동감 있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방 캠퍼스를 문화적 측면에서 논할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이 중앙적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지방적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서울화—중앙화가 곧 서구화라는 착각 현상을 경계해야 하지만, 지방화가 곧 한국화라는 도착 현상도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 캠퍼스의 문화 교육 과제는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모습인 복수로서의 문화들이라는 차원에서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문화의 개성적 표현이 곧 지방 문화요, 지역 문화의 다양성 종합이 곧 중앙 문화”(조지훈, 1962, p. 155)인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 캠퍼스에 대한 문제와 지방 캠퍼스의 문화 활성화에 대하여 제 2장에서 논의되어 있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지방 캠퍼스의 문화교육이 문화 변동에 따른 기존의 대학 문화가 놀이·축제화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주체 의식 표현로서의 민중 문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한다. 제 4장의 결론 부분에서는 지방 캠퍼스의 문화적 주체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속에서만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균형 있는 문화 달성이라는 거시적인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수단적 가치 추구를 통한 실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목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론을 통한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무름을 밝혀 둔다.

## 2. 地方分校 캠퍼스의 問題

지방 캠퍼스의 문제는 문교 정책이 서울 인구 증가의 억제와 지방의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당초의 목표 설정 좌표를 상실한 데서 비롯된다. 더우기 정부에 의한 대학의 정원 동결 정책은 대학 자체의 발전 계획 수립에 차질을 가져 왔고, 그 결과 재단의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미비, 교수를 위한 교육 연구 시설 정비 등의 문제점들이 부각된다.

### 1) 學生 次元의 문제

지방 캠퍼스는 기회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의 지방 확산이라는 측면에서는 학생의 증가 경향을 감안할 때 수자상 계 몫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 증가 현상은 대입 학력고사 지원자 수의 증가(예, 1975년 기준→1985년 약 3.3배 증가) 대비, 대학 편제 정원 수의 증가(예, 1975년 기준→1985년 약 3.7배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김수일, 1987, p. 34 참조).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 캠퍼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지방 출신보다 서울 출신이 더 많다는 점이다. 그 예로, 1978년 입학 정원 40명 선에서 시작한 연세대학교 원주 분교는 1981년 510명, 1987년 690명 선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미지 캠퍼스의 서울 출신 신입생 증가 추세는 1985년도 평균 15% 대비, 1987년도에는 67.5%에 이르고 있다(연세소식, 1987, pp. 6~7 참조). 이것은 지방 캠퍼스 학생들이 서울과 지방이라는 2개의 문화권에 속하면서 어느 문화권에도 결정적으로 속하지 못하는 문화적 갈등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이방인, 즉 경계인으로 불리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산 사람에게서 산울림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처럼 지방 캠퍼스 학생들은 그 지방의 ‘지방 맛’을 맛 볼 줄 알 때, 대학 문화는 더욱 풍요롭고 현실적일 수 있겠다. 그들이 중간 지대에서 서성대는 과도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때만이 열등의식의 제거와 함께 지방 캠퍼스의 사기는 높아질

것이다.

지방 캠퍼스의 입지적 조건은 대학으로서의 전문성·다양성·협동성을 갖기에는 지리적으로 너무나 먼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중상위 계층의 문화권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대학 자체의 기숙사 시설의 미비와 함께 최소한도의 상주 인구라도 확보할 수 있는, 또는 대학 문화 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학촌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지방 캠퍼스의 교육 시설은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地籍 시설의 여유를 제외하고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관 시설의 미흡함과 실험 기자재, 시청각 기제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교육 환경 여건 조성 자체의 불합리한 면으로 인해서 지방 캠퍼스의 대학 문화 형성은 어정쩡한 상태이다. 즉 “신입생에 의한 지입 문화와 지방 캠퍼스 자체의 실익은 무정형 문화의 혼합체이다”(김수일, 1987, p. 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캠퍼스는 중국에는 환경 변인으로서의 지방의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 캠퍼스는 자체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독자적 기능을 갖기도 하겠지만, 그 지방에 위치하는 사실로 인해서 갖가지 문화가 서로 접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조정되면서 변화해 가는 장소로서 파악될 수 있겠다.

동일대학교의 서울 소재 캠퍼스와 지방 캠퍼스간의 이질감 형성은 분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학교 자체내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서 더욱 부각된다. 즉 서울과 지방의 캠퍼스별 분리라는 대전제 아래, 학습 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학사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김수일, 1987, p. 69 참조). 지방 캠퍼스의 문화적 차원에서의 활성화에 앞서서 현대 고등교육의 동향에 입각해 볼 때, 제한 규정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된다. 오늘의 고등교육 경향은 소수를 대상으로 했던 정예교육에서 모든 사람에게 고등교육에의 접근 기회를 허락하는 보편 고등교육으로 나가면서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관리도 병행하는 추세이다.

지방 캠퍼스의 교육 행정은 서울 중심적이다. 부총장제 도입을 통한 독자적인 행정 기능을 갖

고자 하나 현실적으로는 원활하지 못하다. 여전히 서울 캠퍼스의 교학 행정을 따르고 있으며, 일 예로 서울과 동일한 교과목이 지방 분교에 개설되고 있다. 지방 캠퍼스는 자율성의 신장 속에서 독자적인 여러 기반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만이 대학 문화는 형성되고 발달될 수 있다. 다만 서울 캠퍼스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던 지방 캠퍼스의 특수성에 충실하면서 보편성으로의 확산을 꾀할 수 있을 까라는 문제가 조심스럽게 대두된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의 행정 문화는 “대학 조직의 관료화를 극복하고,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조장하고, 인간적 조직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이상주, 1985, p. 37).

## 2) 教授 次元의 문제

대학의 기능은 연구와 교육과 봉사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즉 “학문과 이론 개발을 위한 꾸준한 연찬의 노력, 지식의 전달과 직업 준비를 위한 교육, 전문 지식인의 공급은 물론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 활동”(이효선, 1985, p. 49)이 그것이다. 그러한 대학의 세 기능을 균형과 조화 속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행위자는 교수이다.

그런데 교수 행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서 “높은 임금, 적절한 부가급부, 즐거운 작업 조건”(이형행, 1983, p. 14)을 위한 환경 조성은 교육 기능만이 수행될 정도로 열악하다. 전임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입학시의 조건이 불리한 학생들을 위하여 학문지향적 그리고 캠퍼스 사기 진작을 위해 힘쓰는 경향이다. 이 점은 문화 전형 창출을 문화 활동 자체로 삼는 대학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국에는 지방 캠퍼스가 대학의 상주자인 교수들과 함께 지방 문화 창조를 위한 ‘문화의 집’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을 뜻한다. 요컨대, 지방 캠퍼스에 몸 담고 있는 교수로 하여금 지방 문화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문화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 3. 大學과 文化教育

#### 1) 文化 機能으로서의 教育

문화 개념은 자연을 돌보고 경작하다(colere)로부터 유래한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을 돌보고, 가꾸고,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 내지 필연성을 문화 개념이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키케로(Cicero)가 최초로 문화 개념을 자연을 돌보고 가꾼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영혼을 돌보고 다스린다는 의미로 전용시켰다. 오늘날 문화 개념은 영·미 문화권과 구라파 문화권의 혼합된 영향 속에서 두 가지 뜻이 합쳐져 있다. 하나는 문화를 기성화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으로 폭 넓게 취급한다. 다른 하나는 문화를 인간의 내면 세계가 승고화하여 객관화된 정신적 힘체의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향한 식견을 통해서 얻어진 종교·철학·예술 등과 더불어 인간의 사회적인 삶을 통해서 획득한 능력들과 습관들을 총망라한 것이다.

문화는 삶의 표현 방식으로서 인간의 내·외적인 삶의 표현들을 전체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인간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곧 다름아닌 문화이다. 인간이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은 곧 '인간다움'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자연성으로부터 문화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닌다. 레비슈트로스(Lévi-Straus)는 문화의 시작과 자연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물으면서, "문화는 유기체인 인간의 자연으로부터의 해방이다"(Straus, 1965, p. 80)라고 말한다. 문화는 인간이 자신의 내부 세계와 자신 밖에 있는 외부 세계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문화적일 수밖에 없다.

문화의 사전적인 뜻은 글로써 사람을 가르쳐, 선하고 아름다운 품성 내지 풍습을 지니게 함이다. 문화가 지닌 이러한 양육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교육'이다. 교육의 근본이 인간으로 하여금 지식·품성 등을 지니게 하기 위하여 가르쳐 기르는 것이라면, 교육은 인간적 자연의 양육인 문화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회 속에 살게 되고 광범위한 교육을 통하여 인간들과 관계를 맺

는다.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적인 집단 속에서 자신의 삶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이며, 또한 사회적 행동의 전승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의 전통성은 문화적인 것들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은 전통 문화의 승계 작용이다. 란드만(Landmann)은 인간이 문화적인 것들을 만들어 낸 후에 교육을 통하여 그것을 다시 잃지 않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은 결코 하나의 부수적인 전제 수단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헤르더(Herder)도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그처럼 연약하고 빈약하고, 자연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 있고, 주위 세계에 대하여 노련미나 재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받지 못하는 '교육'을 누리게 된다"(1966, p. 97). 인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곧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는 어느 사회 집단 속에서 교육 받으면서 성장할 때 비로소 그의 인간됨이 결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과 문화와 교육의 순환 관계는 인간을 동물의 영역으로부터 본질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원초적인 인간다움'의 표현 방식이다.

인간은 자신의 세계를 최초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배우면서 형성해 나감으로써 삶의 형성물들인 문화적인 것들을 이룩한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형성한 최초의 모습은 곧 문화적인 모습이다. "어쨌든 우리는 인간을 문화라는 업적의 소유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한다. 비록 문화적인 업적이 원시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없이는 실존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이다. 오직 하나 있고, 있어 왔다면 그것은 문화적 인간들 뿐이다"(Gehlen, 1961, p. 118). 인간은 문화로 감싸인 분위기 속에서 개체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숨을 쉴 수가 있다.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문화적인 환경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문화의 피조물의 모습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속해 있고, 사는 동안 머물다 갈 제한된 활동 범위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서, 오로지 하나의 일만

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그러한 단조롭고도 좁은 활동 영역을 갖고 있지는 않다(Herder, 1966, pp. 21~22 참조). 인간은 응고된 본능 대신에 자신의 소질과 능력으로 창조적인 환상과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들로 인해서 인간은 주위의 사물들을 독창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이용하고 자신의 테도를 스스로 결정하며, 필요하면 언제나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과제를 자신 속에 안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제를 언제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 속에 갖고 있다. 인간은 “오로지 창조적이기만 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창조적일 수밖에 없다”(Landmann, 1969, p. 180).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인간과 문화는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간의 삶의 세계가 곧 인간의 문화 세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에서 문화를 논할 때, 교육을 단순히 보존의 틀 속에 담겨 있는 문화를 전승한다는 수동적인 입장에 국한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교육은 인간이 스스로 한번 창조한 것을 새롭게 재창조함으로써 풍부하게 하고 변모시킬 수 있다는 정신의 생동성에 입각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더욱 강조된다. 교육의 목적은 발전에 있다. 자아 실현을 통한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요, 사회의 발전도 교육을 통해서 이룩된다. 그러므로 교육이 삶의 형성물들을 전통이라는 틀 속에 담아 다음 세대로 전달하면서 일정한 시기의 특정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만 규정짓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은 삶의 모습 내지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배운다. 그러므로 문화가 인간이 그의 삶 가운데 새롭게 가꾼 “자연의 총체”(Gehlen, 1971, p. 38)일진대, 문화 기능으로서의 교육은 단순한 정보 수집과 전달 과정만은 아니다. 그것은 정보 획득의 방법 내지 문제의 구성과 같은 본질적인 면을 지닌다. 교육은 인간으로 하여금 문제 의식을 갖게 하며,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상황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단순한 자연의 순응 이상의 그 무엇을 얻을 삶의 세계를

경험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우리가 교육을 곧 문화적 과정으로 본다면 지방 캠퍼스의 교육이 문화를 고려할 때 취할 입장은 분명해진다. 즉 지방 캠퍼스는 문화에 대한 기존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관점을 택하는 속에서 예기치 않은 문화 형성 가능성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규정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드러난다. “문화는 인간화된 인간만을 보지 않고, 인간이 되는 인간의 창조성과 그 성숙 과정을 문제시하고 항상 인간의 본질에 대해 열려 있는 물음을 던진다”(양창삼, 1984, p. 92).

## 2) 文化變動과 大學文化

한국 사회의 문화 변동은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편으로 대중 문화의 성격을 띤 외래 문화의 침투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말미암은 전통 문화의 파괴라는 혼재 속의 문화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외래 문화의 수용은 인류 문화의 개방적 교류라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문화라는 극적 불명의 외래 문화의 지나친 수용은 문화를 자주적으로 성장시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한다. 특히 '60년대 후반부터의 급격한 대중 대체의 발달과 팽창에 따른 미국식 대중 문화의 범람은 포면적인 문화의 풍요와는 달리, 우리로 하여금 문화적인 주체성을 상실하게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개발 도상국 사회가 문화적 의존성에 대해서 거의 속수무책인 것은 소위 ‘근대화 이론’에 입각해서 문화 정책이 추구된 데 기인한다. 즉 미국을 표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서구 사회의 과학 기술, 가치 체계, 교육 제도 등이 개발 도상국 사회의 전근대적인 전통 문화를 근대화시킴으로써 정치·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의 발전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Coleman, 1960, p. 533 참조). 이것은 결과적으로 개발 도상국 사회가 개성을 지닌 자주적 사회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서구 사회의 낙오자로 이해되면서 문화적 의존성만 심화시킬 뿐이다. 즉 이는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 정책이란 결국 “국가 권

력 또는 독점 자본에 의하여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인간 의식을 형성시켜 나감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인간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전일균, 1987, p. 238). 여기에는 자본의 문화 영역에 대한 침투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체제 유지라는 통치 형태로서의 정치 목적이 개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중 문화라는 문화적 현상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대중 문화는 시장의 극대화를 위해 표준화와 상업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쉽게 이해되고, 통속적이고 정형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문화적 소재가 된다. 또한 그것은 평준화된 대중을 상대로 비판과 자율성이 결여된 하나의 상품으로 전달되는데, 이것은 “비판 의식을 둔화시켜 인간을 부정의 사고 대신에 순응주의와 체념의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김성국, 1986, p. 12). 요컨대 대중 문화는 효율 지상주의 성격과 도구적 성격을 띠면서 우리 현실에서 저급한 감각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와 더불어 의도된 비판 의식의 둔화·시도로 인한 퇴폐적 향락주의의 만연을 불러 일으킨다.

대중 문화에 대한 부정적 전달은 우리 현실이 문화의 주체자로서의, 문화의 형성자로서의 기능을 대중 문화라는 신기루 속에서 상실한 때문이다. 더우기 대외 지향적인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상업주의 경향과 관료적인 권위주의가 민중 부문에 대한 갖가지 억제를, 국민의 탈정치화를, 또는 각종 방법을 동원한 의식 조작을 시도한 때문이다. 이옥경은 '70년대 한국 사회의 대중 문화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중 문화는 체제 정당화의 성격, 소비적·외세지향적 성격, 탈의식화의 성격, 오락 위주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상업성에 대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긴장 관계의 표현인 복종적·전통적 가치 강조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1984, p. 283).

우리는 '80년대 들어서면서 대중 문화의 복합적 성격이 더욱 세련된 문화 정책 속에서 무엇보다도 대학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한 대표적 예가 ‘국풍 81’이다. 이 행사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면서 이들의 전통 문화에 대한 대학의 열기를 새

로운 민족 문화 창조라는 명분 아래 체제 내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통한 건전한 대학의 비판 의식을 마모시키려 하였다. 행사 내용에 있어서도 박제화시킨 민속 놀이와 향락적 대중 문화가 주류를 이룸으로써 이것이 전통의 계승과는 거리가 먼 말초적 여흥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전일균, 1987, p. 251 참조). 이러한 체제 유지적 차원에서의 오락성으로 채워진 놀이 축제 위주의 문화 현상이 다른 아닌 대학 문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대학의 놀이 성격을 띤 축제 문화는 역사적으로 대학의 사회 참여에 따른 세속화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산업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학이 참여하면서 대학 안에 현실 사회에 대한 풍자를 통한 저항과 서구지향적인 ‘근대화’에 반발한 전통 문화 저항의 욕구가 함께 표출되는 축제의 광장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이 지닌 놀이·축제 문화의 특이성은 그것이 세속성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속적 질서에 대한 반질서·반체제의 경향을 띤다는 사실이다(이상일, 1985, p. 29 참조). 대학의 놀이 축제 문화는 '60~'7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래적인 순수한 전통 문화가 그 내용을 제공하고, 반체제적 성격을 띠면서 대학의 전형 문화를 자리잡고 있다.

대학의 사회 참여는 곧 대학의 정치 상황을 불러 일으키고, 그것은 놀이와 축제를 통해 표출된다. 대학의 놀이 축제 문화의 성격은 “대학의 사회 참여를 잠재적으로 유도하는 운동권 내지는 정치 집단의 수단이 되고 그만큼 이념의 표현 수단, 의식화 작업의 성향을 대변하게 된다”(이상일, 1985, p. 30).

정치는 문화 실현이라는 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 문화 전형을 창출하지는 못한다. 대학 문화는 대학 고유의 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정치의 장외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오늘의 대학 문화는 아이로니칼하게도 비록 그것이 반체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축제를 통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다. 문제는 대학의 놀이·축제 문화가 근원적인 의미도 상실한 채,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 깊이 몰입하여 노골적인 정치

성향을 띠게 될 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간의 원초적 욕구 충족을 위한 향락적 성향을 띠게 될 때, 대학이 당위성의 대학 문화 형성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축제의 무목적성을 과시하는 듯한 대학의 놀이·축제 문화는 대학이라는 문화 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문화 형성 참여자들을 대학의 문화인답게 만들 문화적 규범의 형성은 불가능하게 한다. 그것은 대학으로 하여금 탐구와 연찬, 가르침과 배움을 통한 인격 형성 등의 삶의 근본 목적 추구를 위한 전당의 역할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스퍼스(Jaspers)는 “대학에서의 진리 탐구는 모든 직접적이고 실리적인 의무가 면제되며, 단지 진리 그 자체에 대한 의무만이 존재한다. 학자는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현 존재의 투쟁에 들어가지 않는다”(1961, p.88)라고 말한다. 대학은 행위가 있으되 투쟁에 의한 행위는 아니며, 그것도 현 존재의 이익 차원을 넘어선 진리 그 자체만을 향한 탐구 행위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진리 그 자체를 향한 탐구 행위와 합은 문화적 측면에서는 문화의 근원적 전형을 창출한다는 뜻이다. 대학 문화의 당위성은 문화 행위 자체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전형을 창출하는 곳에서 찾아진다. 여기에 대학에서의 놀이·축제 차원의 문화 행위가 불식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오늘날 대학의 놀이·축제는 시도 때도 없다. 어느 대학에서나 동일하게 획일화된 속에서 놀이·축제 마당이 펼쳐진다. 문화 전형 창출이라는 이념 집단으로서가 아닌 세속화된 대중 대학의 모습이다. 이제는 대학 문화가 이미 오염된 대중 문화적인 성격으로부터 탈피하여 진정한 민중 문화 창출의 현장으로 탈바꿈할 때이다. 민중 문화 창출 작업은 대학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문화 형성 기능으로서의 교육을 생각할 때, 대학은 교육의 전형적인 실현 장소요, 창조적 문화 이념 창출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의 문화 이념 형성은 전문적으로 문화 전형 창출에 종사하는 교수와 학생의 전체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중 문화는 민중 속에서 자라온 문화를 현재의 삶에 접합시켜 전 민중이 누

리는 문화인데, 그 뿌리는 각 지방 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전통 문화 속에서 찾아진다(이육성, 1984, p.284 참조). 전통 문화는 역사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한낱 전통적인 사물을 일컫기보다는 민중이 살아 숨쉬는 정신의 생동성이 깃들어 있는 문화이다. 그 속에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지는 민중의 실체가 들어 있다. 따라서 전통 문화 내지 지방 문화는 수족관의 물고기처럼 한낱 관상용이 될 수는 없겠다. 우리 삶이 현실에 대한 거부 태도 속에서 누가 문화 형성과 향유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가 확인되는 마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地方 문화와 地方分校 캠퍼스 문화

#### (1) 지방 문화의 실태

우리는 도처에서 ‘새 시대의 장’으로서의 ‘지방 시대’를 맞이하는 느낌이다. 이것은 원래는 ‘중앙’ 이전에 ‘지방’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양,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복원’의 욕구에서 나온 현상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 개념에는 여전히 중앙에 대해 구석지고 치우친 것같은 주변성의 의미가 내재해 있다. 즉 지방이란 “중앙에 대하여 격차 혹은 불평등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 서열 관계상의 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용어이다”(김성국, 1986, p.35). 따라서 지방 문화는 중앙 문화, 곧 서울 문화를 모방하고 그 결과 지방 문화는 각자의 개성과 기질을 상실해 왔고, 상실중인 유사 중앙 문화의 모습이다.

지방 문화의 자주성 상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에 따른 지역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제 성장 위주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상호 의존적이 아닌 종속적 경향을 띠면서 도시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치·경제·문화에 걸친 모든 혜택이 서울—중앙으로 몰리게 되면서 지방과 서울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민중 부문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었다(임현진, 1987, p.269 참조). 그리하여 전국이 도시적 대중 문화의 범람을 통해 감상적·즉흥적인 행동이 지배하는 가시적 문화 현상이 팽배해지고, 상대적으로 삶의 내용과

절적인 향상을 찾아다 줄 ‘보이지 않는 문화’의 잠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문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그것은 서울의 분재 문화일 뿐 그 독창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의 지방 문화 현상은 중앙 문화 유입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 문화의 유출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이다.

문화의 실체는 인간의 본질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인간 자체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본원성을 지닌다. 이것은 문화가 지방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을 궁극적 것을 극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지평을 보편성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생동성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제국주의 입장에서처럼 우리 자신을 변방 지대로 인식하여 중앙—변두리의 관계로 따져 보는 것과 같은 문화 인식은 극복되어야 한다(박태순, 1984, p. 30 참조). 모든 문화는 그 자체 안에 특수성의 계기와 보편성의 재기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할 때 중앙 문화의 지방성, 지방 문화의 중앙성이 변증법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부각되는 것이다.

## (2) 지방 문화에 대한 대학의 위치 정립

이는 지방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서의 문화 마당으로서의 위치 확립이다. 우리는 문화 공간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지방이라는 소외된 공간, 돌보지 않는 공간에 문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가꾸고 환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 역할은 지방 캠퍼스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산업 사회에서 그에 따른 사회 변동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속에서 문화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고려한다면, 지방적인 것이 곧 중앙적인 것이라는 모두를 위한 문화 형성 차원에서 대학의 문화교육이 요청된다.

① 民衆文化에 근거한 방향 설정: '70년대에 들어와 특히 강조되기 시작한 ‘민중’의 문제는 “민중이 이 사회와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상황 인식”(유재천, 1982, p. 12) 속에서 제기되었다. 민중 문화의 형성은 “민중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억압적 환경을 깨닫고 집단적 유대를 통해 그 환경을 타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이옥경, 1984, p. 284).

민중 문화는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자연

발생적인 성격을 띠고 민중의 생활과 착되면서 민중에 의한 문화 형성, 문화 향유를 제창한다. 이처럼 지방 캠퍼스의 문화교육도 지방의 자생적인 관심 제고와 함께, 지방 전체를 위한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대학은 지방 문화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다.

또한 민중 문화는 현실에 대한 고발 정신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문화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이것은 민중 문화가 역사적으로 분 때 “피지배 계층의 문화로서 민중에 의해 창조되고 민중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유재천, 1982, p. 13)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지방 캠퍼스의 문화교육도 토착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 문화의 내적인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형성해 온 대학 문화 전반에 걸친 절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달리 말하면 각 대학에서 향유되고 있는 놀이·축제 문화가 참다운 의미에서의 대학 문화의 본체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민중 문화는 “문화의 생산(=일)과 문화의 소비(=놀이)가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분리되는 것을 거부한다. 일과 놀이가 합쳐지고 문화 매체의 공유화를 통해서 삶의 공동체성이 추구되기 때문이다”(김성국, 1986, p. 43).

② 傳統文化에 근거한 방향 설정: 오늘날 전통 문화에 대한 의의를 되새김은 지방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 의식을 마비시키고, 상업주의적 환각에 빠지게 하는 문화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민중 문화의 요구 때문이다. 현대의 밀어닥치는 산업화의 물결은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과 함께 우리의 생활을 문화적 전통에서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즉 이는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빚고 있다. 우리의 현실적 과제는 전통 문화를 그 개성을 되살리면서 이를 오늘의 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재창조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전통이란 단어는 단순히 지나간 문화 형태들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문화의 형태들을 역사성 속에서 이룩한 인간의 개방성으로 인해 과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공급하고, 미래를 향해서는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역사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Landmann, 1969, p.235 참조).

그러므로 전통 문화는 현재와 함께 살아 숨쉬는 과거의 문화로서 시대와 지역을 뛰어 넘은 정신의 맥이다. 이 정신의 맥이 곧 민족주체 의식이다. 이 의식은 그 사회의 전통 문화에 대한 긍지 속에서 형성된다. 또한 그 속에는 전통 문화의 생명과 가치가 들어 있다. 민족주체 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만나게 되어 관념화된 보편주의로부터 원초적인 문화 의식으로 되돌아오게 한다”(김진균, 1983, p.223). 이처럼 민족적 특성 위에 기초한 전통 문화는 민족의 실체를 발견할 요람이다.

전통 문화는 대학 문화에 있어서 원형 보존 차원이 아닌 현실에 합당한 재조명의 당위성을 지닌다. 이것은 지방 캠퍼스의 문화교육이 문화창조의 구심점으로 위로부터의 엘리프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민중이라는 자의식 속에서 이루어야함을 시사한다.

즉 지방 캠퍼스의 학생만의 차원에서 지방 민중과의 통합 차원으로의 확산을 뜻한다. 문화는 자체내에서 이견이 제시되고 논쟁을 거듭하면서 다양성을 확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열린 사회의 장점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자치 활동도 지방 캠퍼스라는 문화적 도양에 걸맞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일 예로,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에 ‘연원 확보’가 자체내에 발간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자생적 활동의 결과이다.

지방은 수직적인 통제보다는 수평적인 유대를 원한다. 지방은 전체 아래 종속되는 개체보다는 개체의 자유와 연결되는 전체를 더욱 원한다. 지방 캠퍼스의 학생들은 지방 전통 문화의 잠재적인 민중 문화의 창조력으로 부각된다. 지방 캠퍼스가 형성하는 문화는 그 스스로 보편성을 지향하는 측면과 지방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특수성을 지향하는 측면을 함께 지니야 한다. 이럴 때 지방 캠퍼스의 문화교육은 지방 문화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개성 있는 창조성을 지닐 수 있겠다.

#### 4. 結 論

오늘날 우리는 문화의 본질성을 상실한 듯한 문화적인 여러 현상들을 사회 전반에 걸쳐 보게 된다. 지방 캠퍼스는 지방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문화적 환경에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대인의 고뇌에 찬 소망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문화교육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것은 지방 캠퍼스의 성립이 단순히 과민한 서울 인구의 지방 분산책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미 실패한 모습이다. 왜냐하면 지방 캠퍼스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서울 출신이며 그들 중 많은 수가 통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캠퍼스는 어디까지나 그 지방의 주체적인 문화들 지방 문화의 순환 관계 속에서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 때 서울 소재 캠퍼스와의 문화적 평등과 더불어 문화의 다양성을 획득할 수가 있다. 특히 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될 때 각 문화는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는 물론이요, 다른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 한 문화의 절대화 내지 이상화는 있을 수 없다. 일 예로, 지방 캠퍼스와 서울 소재 캠퍼스와의 관계는 피차간 위신을 얻으려는 충동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혜자도 시혜자도 아니라는 호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각각의 문화적 위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실행 모방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동화적 모방이 아닌 동등적 모방이어야 할 것이다(신용하, 1984, p.112 참조).

그러므로 지방 캠퍼스의 문화교육은 실천적 좌표로서 지방의 독특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더불어 사는 삶’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지방 캠퍼스의 문화교육이 목적하는 바, 전통 문화 속에 담긴 생동적인 과거와 지역 공동체의 현재적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지방 캠퍼스라는 조직은 지방 문화 형성에 주도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자체내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대학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학구적인 방향으로 유도되는 학문적 문화,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적 문화,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유희

적 문화를 형성하도록 대학 시설의 확충과 정보 체계의 정확·신속성과 여가 선용의 공간 배려가 계속 요구된다”(김수일, 1988, p.102). 요컨대 지방 캠퍼스는 불리한 문화적 환경이지만 새로운 문화 전형 창출을 위한 시도를 지방과 함께 호흡하는 속에서 계속할 때 미래를 향한 발전 가능성이 엿보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성국, 지방문화운동의 의의와 전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86.  
 김수일, “서울지역 소재 대학교 지방캠퍼스의 현황과 전망”, 연세논총 24,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3.  
 김진균, 한국사회변동연구(I), 민중사, 1984.  
 양창삼, 산업사회론, 서울: 맥밀란, 1984.  
 유재철, 문화와 통치, 서울: 민중사, 1982.  
 이상일, “반대학생의 놀이문화”, 대학교육 17, 1985. 9, pp.28~32.  
 이상주, “대학문화의 미래”, 대학교육 17, 1985. 9, pp.33~37.

이형령, “대학의 성립과 발전”,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위원회편, 대학의 뜻,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0.  
 이옥경, 한국사회 변동연구(I), 민중사, 1984.  
 이효선, “대학과 사회변화”, 대학교육, 17, 1985. 9, pp.48~53.  
 임현진, 한국사회의 재인식, 한울, 1987.  
 진일균, 한국사회의 성격과 운동, 공동체, 1987.  
 Coleman, J.S., The Political Systems of the Developing Areas, Princeton, 1960.  
 Gehlen, A., Urmensch und Spätkultur, Bonn, 1956.  
 ———, Der Mensch, Frankfurt/M., 1971.  
 Herder, J.G. Abhandlungen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 Stuttgart, 1966.  
 Jaspers, K., Die Idee der Universität, Berlin, 1961.  
 Landmann, M.,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Berlin, 1969.  
 Lévi—Straus, C., Natur und Kultur, in: W. E. Mühlmann(Hrsg.), Kulturanthropologie, Köln, 1965.